“인천, 전국 제일 행복 교육 도시 만들겠다”

고승의 인천시교육감 후보 인터뷰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에서는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의 후보를 만나 인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후보자의 지난 날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오

저는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 대한민국 반만년 개국 역사의 얼이 깃든 마니산이 있는 ‘호국의 성지’인 강화군 화도면에서 가난한 집안의 4남4녀 중 다섯 째로 태어나, 고향 강화에서 길상초, 강남중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공부는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명문이었던 인천고등학교에 합격하여 다니던 중, 인천 유학 생활비와 월사금도 댈 수 없는 집안 사정으로 1학년 1학기 시작 두 달 만에 짧았던 학교생활을 마감 할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도 자퇴를 만류하는 선생님과 학우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후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영등포에 있는 동양고무공장 직공, 용접공, 인천 금곡동에 소재했던 잡화도매상 사환 등을 전전하던 중, 어느 날 배달을 하다가 담벼락에 붙은 공무원 시험 공고를 보고 천신만고 끝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때의 상황과 심경을 예기하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겁니다.

1970년 공직을 시작한 첫 발령지가 제가 졸업한 모교 강남중학교였습니다. 졸업한 지 3년 만에 학생에서 공무원으로 돌아온 저로서는 금의환향이었고, 당시 저는 후배들의 우상이었습니다(웃음). 1972년에 저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제가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제 옆에 있는 집사람과 결혼을 한지 1년 만에 현역입대를 하여 강원도 양구에서 수색대대 정예요원으로 35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집사람이 대가족 살림과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공직에 복직 후, 1981년 인천직할시 승격에 따른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 창립요원으로 활동하였고, 1981년 7월 인천시교육청 전입, 1986년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시교육청 및 북부교육청 관리과장, 1998년 서기관으로 승진,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담당관·총무과장, 시교육청 관리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7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중앙도서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인천교육행정에 봉직하다가 2011년 퇴임하였습니다.

40여 년간 교육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많습니다. 교육연합신문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김에 저의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학교신설이 어려운 남동구 논현동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한화건설과 협의하여 한화소유의 부지에 학교용지를 무상 받았던 일, 부개서초등학교 인근의 재개발로 학교용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재개발사업자 측에 무상기부를 실현한 일, 퇴임에 임박하여 인천교육대상 수상자로 추천을 받고도 사양하고 다른 동료공무원을 추천하여 화기애애한 교육청 분위기를 만들고 공직을 떠났던 일 등과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중앙 교육부관료가 독점했던 인천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에 강화촌놈 말단공무원 출신이었던 제가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최초로 발령 받은 후, 현재도 저와 같은 후배들이 그 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1979년 문교부 장관 표창, 1985년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 1996년 정부 근정포장, 2011년 공무원 최고영예 중의 하나인 홍조근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새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고맙고 인천시교육청과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아쉬었던 배움의 꿈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짬은 가방끈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경야독으로 6개월 만에 고등학교검정고시를 합격하였고, 교육행정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후,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남들은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석사학위를 받은 날 저와 집사람은 학위증을 안고 울다가 학위증을 들고 웃으며 하루를 보낸 기억이 생생합니다.

교육행정공무원 퇴임 후, 평소 꿈꾸었던 교육이상의 실현을 위해 사립 덕신고등학교 교장공모에 도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덕신고등학교는 당시, 강화지역 중학생 중, 대부분 강화고와 강화여고로 진학하고 남은 학력이 낮은 수준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였습니다. 부임 첫날, 학교에 가보니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모습은 긍지나 꿈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먼저, 인문학 강의, 우리역사 바로알기, 학생상호간 및 사제 간 교류확대를 통해 바른 인성교육에 공을 들였고, 교사개혁과 기숙사 신축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교육가족과 뜻있는 지역인사, 유관기관들의 상부상조로 장학사업도 펼쳤습니다(현재, 덕신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 그 결과 지역에서 덕신고등학교가 사랑이 넘치는 학교, 인성이 바른 학생들이란 평을 듣게 되었고,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학업에도 열중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어 대학진학률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물론 저 혼자만의 노력의 결과는 아니며, 교직원들과 학생은 물론, 학부모·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아름다운 교정문화를 꽃피우려는 의지가 반영될 결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속담을 실현시켰다는데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Q2. 교육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난 3월 13일 출간한 저의 책 ‘인천교육의 안부를 묻는다’에서 밝혔듯이 개인적으로는 어머니를 일찍 여읜 저에게 학교는 나의 어머니가 되어 주었고 학교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원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로부터 받은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인천교육과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며 마지막 소명이라는 각오로 인천교육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출신 진보교육감의 뇌물비리로 인해 인천교육의 이미지와 교육력은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학생교육을 위해 그리고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 교육청직원들까지 비리교육감의 영향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무시 받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대로 방관하면 인천교육을 다시 세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한번 청렴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을 만들어보자”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3. 진보성향 전임 교육감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선거가 더 중요한 이유인데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로서 이번 선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된 후,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여야할 교육감선거가 이념과 특정집단의 패권 싸움터로 변모하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 제1대 시민직선 교육감에 이어 제2대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수감 되어 인천교육의 컨트롤 타워(control-tower)가 연이어 붕괴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인천교육감 선거가 정치놀음판이나 일부 특정집단이 패권을 잡기 위한 싸움터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며, 깨끗하고 정당한 정책선거, 인물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인천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교육감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인천교육과 인천의 학생들을 사랑하고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천인, 시민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공직자와 소통하고 함께하는 인천사람이 인천교육을 이끌어 가야합니다.

제3대 시민직선 교육감선거는 인천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며 전교조 진보교육의 실패를 거울삼아 희망인천교육을 위한 교육현장에 필요한 균형감각을 되찾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을 통해 인천 교육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Q4. 인천이 다른 도시와 비교해 교육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약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약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강점은 인천의 다양한 역사적, 지리적 환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개항의 도시로 새로운 근대사를 일으킨 지역으로 다시 4차 산업사회 교육여건과, 지리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 등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는 글로벌 인재교육 환경 인프라가 강점이며,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학생체험학습에 유리합니다. 또한, 북한과 인접하여 통일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교육의 모습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점과 개선방안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교육소외 지역이 증가하므로 다양한 교육복지정책과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과밀학급 증가에 대한 학교신설이나 교실증축이 필요하며, 열악한 도서·농산어촌 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우수교원 유인정책과 경기도와 서울이 인접해 있어 인재 유출에 대한 우수인재 유인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한 가정,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한 문화적 갈등의 발생의 여지가 있어 다문화교육의 강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Q5. 후보님이 반드시 교육감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는 많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 발생된 인천 교육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부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을 적임자 입니다. 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장 임용과 평교사의 교육청 집행부 간부 배치, 전문직 선발시험에 특별전형을 두는 등 편향된 교원 인사정책의 개선, 혁신학교의 무리한 확대와 몰아주기식 재정지원, 인사차별 등으로 인한 소외된 학교에 대한 교육예산의 역차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감은 특정집단이나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인천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교육감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천인, 시민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공직자와 소통하고 함께하는 인천사람이 인천교육을 이끌어 가야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인천교육 현장에서 40여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교육행정 경험과 일선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학교현장 경험을 통하여 현재의 인천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소신 있게 인천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인천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 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실력있는 인천교육에 대한 믿음과 비전을 갖춘 실력있는 인천교육을 실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깊은 고심 끝에 뜻을 함께하는 교육전문가들과 꾸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밝고 바른 청렴과 신뢰의 희망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한 5가지 정책공약과 공약별 세부실천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놓았습니다. 인천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밝고 바른, 청렴하고 신뢰받는 희망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마지막 열정과 신명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Q6. 인천시교육청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후보님만의 예산확보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청 예산은 보통교부금, 법정·비법정수입 등 의부재원이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보통교부금은 인천의 특수성을 반영토록 교육부에 요구하여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인천시와 교육협력 및 지원요청으로 비법정 전입금 추가확보, 도시개발에 따른 교육경비의 개발자 부담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특별교부금의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육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다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마을공동교육체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학생의 복지를 위하여 장학사업 추진에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Q7.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폐지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은 정부방침으로 고교서열화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되지만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교육부의 무리한 폐교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Q8. 원도심학교 이전재배치와 신도시 학교신설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신가요?

인천의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부의 학교통폐합 기준과 투자심사기준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배움터뿐 만아니라 지역사회 문화 중심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원도심학교의 이전재배치는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송도, 청라, 영종, 가정지구, 서창지구 등 신도시 학교신설은 인천의 특수성이 투자심사기준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행정적·정치적 방안을 강구하여 신도시 학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9. 올해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부담하는데 있어 인천시와의 갈등도 많았는데,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복지는 한번 시행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복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의 시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한계가 있는 교육예산을 차감하여 무상급식에 사용해야 하는 무상급식의 실시 문제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인천시의 재정사정이 좋아져서 2018년 3월부터 유·초·중·고등학교 전면급식이 전국최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만이 지원 대상에 빠져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교육감이 되면 사립유치원도 무상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치로 고등학교 석식 무상급식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Q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8공구에 신설할 학교용지(3개교)를 무상공급하고 시설비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갑작스레 번경했습니다. 학교시설비 조기 분납을 전제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해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인천경제청은 송도 6·8 공구에 학교용지와 시설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2016년도 LH와 경기도교육청간 소송 관례를 경제청 입장에서 해석하고, 지난해 3월 교육부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는데, 개정안의 ‘부칙’ 제2조에서 개정 이후 신규 승인 건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학교용지 무상공급과 비용부담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의 학교시설무상공급분담금의 미집행이 장기화될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양초등 3개교의 적기·정상개교가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학교신설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입주예정 주민과 학생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며, 학교신설이 중단되면 송도지역 학부모 학생의 피해는 물론, 도시개발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육부, 인천시, 인천경제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Q11. 2016 경북 경주 지진을 계기로 추진된 인천학생안전체험관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학생의 안전은 그 어떤 것 보다 중요합니다. 저의 공약중의 중요한 하나가 ‘안전한 학교’이며 ‘인천의 아이들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책임을 지는 인천교육’을 만들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시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과 자체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가장 먼저, 안전체험관 건립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진에 대비하여 취약한 학교시설물의 안전보강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Q12. 인천시교육감이 된다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싶은 일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해내고 싶은 일이 너무도 많은데, 꼭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하나요?(웃음). 우리 인천은 ‘서인대부(서울-인천-부산-대구)’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부분에서만은 ‘서인부대’를 뛰어넘어 ‘인서대부(인천-서울-대구-부산)’ 즉, 인천이 제1의 ‘행복교육도시’로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우리 인천의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을 심어주는 교육에 중점을 두려 합니다. 저는 덕신고 교장시절에 바른 인성이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갖게 하고 학업에도 열중하며, ‘학생 상호간의 존중으로 사랑이 넘치는 학교, 선생님 존경, 어르신 공경’ 풍토가 만들어 진다는 것을 직접 체험 한바 있습니다. ‘바른 인성교육’은 ‘행복도시 인천’이 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권이 바로서야 나라가 선다’는 말이 있듯이 교권신장에 노력할 것입니다. 전임,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의 지나친 학생인권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교권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으며 선생님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학력 또한 전국에서 하위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과 학부모님들의 실망이 큰 상황입니다.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유명무실한 교권조례를 개정하고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인천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전담변호사제도를 만들 계획이며 이름뿐인 ‘스승의 날’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감사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간, 학교간, 계층간 교육균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원도심·농어촌과 신도시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원도심·농어촌 지역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체육관 및 기숙사 건립과 학교개축을 하는 한편, 재정지원 확대와 우수교사 배치를 할 계획이며,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입니다. 학교 간 교육균형 발전을 위하여 사립유치원과 사립초·중·고등학교의 운영자율권 확대, 재정지원 및 시설확충, 사학전담부서 신설추진,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입학금·학습준비물 지원, 사립교사 공립특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층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인천특수교육진흥원과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다문화학생 및 탈북민자녀 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소외계층의 자녀를 위한 학비지원은 물론, 인천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장학사업을 펼쳐 교육비 걱정 없는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13. 마지막으로 인천시민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 주세요.

우리 인천교육의 성장과 발전은 인천시민여러분의 인천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교육감선거는 인천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뽑히는 교육감은 진정으로 인천교육과 인천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실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 시민과 학부모 그리고 인천시민들과 소통하고 요구를 반영하는 사람, 분명한 교육철학과 열린 자세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천교육과 인천의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40여년의 교육행정과 일선학교장으로 근무한 학교현장 경험을 통하여, 인천시민과 학부모님들이 인천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과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천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교육발전과 인천의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깨끗하고 창의적인 인천교육을 펼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여러분 그리고 학부모여러분! 누구에게 인천교육을 맡기시겠습니까? 인천교육을 무너뜨린 전임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에 이어 또 다시 인천교육을 전교조 출신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두 명의 전임교육감이 연이어 뇌물수수로 전과자가 되어 나갔는데 이번에는 전과가 있는 후보가 교육감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 성공의 열쇠는 인천시민과 학부모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천교육의 새로운 변화의 창조자이며 그 주인공입니다. 40여년 공직을 통하여 청렴과 능력, 전문성이 검증된 저 고승의가 ‘맑고 바른 청렴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으로 전국제일의 행복교육도시인천’을 만드는데 이 한 몸 바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